

우리 모임에선

부산청년산악회 수련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회장 김정관)는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해 두타산과 정곡산 산화사에서 하계 수련회를 가졌다. 회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산행을 수행에 접목시켜 나가는 묵언산행, 호흡주시 산행, 잘 들어 다보기 산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이 밖에도 불교교리와 좌선법 강의 및 실수시간을 가졌으며, 철야정진 후 삼하사 주지 원행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기도 했다.

전국교사불자 연수

한국불교교육원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김광열)은 8월 6일~8일 충북 괴산 다보사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포교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교사 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수회는 입재해 오리엔테이션, 동국대 정병조교수의 강의, 수행실수, 친교시간, 기도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성불회 정기법회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는 29일 정오 강당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클릭! 수행방법·도반 만나요

유불동 금강경 100번 읽기 캠페인 전개
천불동 경전 공부방·염불기도방 등 운영
하불동 불교영어·구법토론·상담실 개설

땀방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 불교통신동호회가 굳이 절에 찾아가지 않고도 네티즌들이 수행에 몰두할 수 방법들을 속속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통신동호회는 사이버 상에 개설된 '경전강독' '신행상담' '구법토론' 등의 신행코너를 강화하고 불자네트즌들의 수행 이끌기에 한창이다.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 정경자)는 서경지역장의 제안으로 '금강경 100번 읽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불동은 캠페인을 통해 얻는 공덕은 물론 유불동 회원들이 하나의 수행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이버도반으로서의 연을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경전 구입 방법에서부터 독경 방법, 경구의 뜻, 수행절점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운영진들과 수시로 질의응답해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지공 서경지역장은 "경전을 읽는 공덕은 물론 유불동 회원들이 하나의 수행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이버도반으로서의 연을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이경재)도 '경전강독' 코너에서 △(해심밀경)을 중심으로 한 유식사상 공부방 준 향상 △불교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등의 기대효과를 불교계 저변에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캠페인에



몰리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천불동은 그 외에도 △선수행 △염불·기도 △경강·실용수행 등을 통해 다양한 수행실수의 방법과 자가 점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정지문)는 '불교영어' '구법토론' '팔만대장경' '신행상담실' '불교기초' 등의 코너를 강화, 기초교리에서 선(禪)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

◇각 통신 불교 동호회에 클릭하면 자신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천리안 불교 동호회 메뉴.

자들의 수행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구법토론'에서는 네티즌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며 수행 공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 내용도 '무엇이 참된 바라문인가' '라즈니쉬 그는 사이비일 뿐이다' 등 다양한 논쟁을 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사 대장경 정대불사 회향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6일~18일 3일간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 1천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대장경 정대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독경을 하면서 법계도에 따라 도량을 순회하는 행사. 조계사는 70년대 말 경관을 제작해 매년 한 차례씩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 오고 있다.



종단협 불교연합합창단 창립

불교연합 합창단이 창립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연합합창단(회장 김순임·부회장 합창단장)은 22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헌관식을 갖고,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 관음종 흥과 총무원장을 비롯 합창단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회당학원 제1회 가족제전

회당학원(이사장 최희광)은 19일, 20일 양일간 경주 위덕대에서 진각종립 5개 학교 직인들이 참여한 제1회 회당학원 가족제전을 개최했다. '미래를 향하는 회당 교육가족의 합성'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 진선여중, 진선여고, 대구 삼인중·고, 경주 위덕대학교 등 교직원 4백여 명이 참석한 제1회 기념법회, 전야축제, 20일 배구, 풋바이스볼, 4백m 계주, 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신행모임 '신수회' 운문사서 수련회

신수회와 여여회는 17일~18일 양일간 청도 운문사에서 합동 수련회를 가졌다. 2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철야정진, 아침예불, 운문사 주지 혜은스님의 법문, 가람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혜은스님은 "비록 몸이 병이 들어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부처님께 입심으로 기도하면 가피를 입게 된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한전 8개 불자회 봉정암서 철야정진

한국전력 전국 8개 지역 사업장 불자회가 17~18일 봉정암에서 합동 철야정진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대회에는 본사 반야회를 비롯 월성원자력불자회, 울진원자력불자회와 남서울전력, 한일병원, 수원전력관리, 경남지사, 중앙교육원 등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1백여 명의 한전불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백담사 참배, 연합법회, 상견례, 철야정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한전불자들은 신심증상 수련에 앞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로서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류했다. 김영창 한전 본사 반야회 회장은 "각 사



업소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법회를 가지게 돼 여간 기쁘지 않다"며 "한전이 분사(分社)되기 전에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법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또 김홍수 울진원자력불자회 회장은 "직장인들에게 철야정진은 쉽지 않은 수행이다. 자기 사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운불련 첫 체육대회



제1회 한국운전기 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 체육대회가 18일 대구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15개 지역회 팀이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걸쳐 경합을 벌인 이날 체육대회는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영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한 지붕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구경기에서는 끝까지 팀워크를 유지하며 혼연일체가 된 대구지역회(회장 류지순)가 부산지역회와 결승을 벌여 우승기를 차지했다. 또 결승전에서 영호남 대항을 벌인 대구와 족구, 테니스는 광주지역회(회장 김운문), 포항지역회(회장 권운재), 대구지역회가 각각 우승컵을 걸머졌다.

탐방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는 올 봄 회원 가족들과 석두암 성지순례를 가졌다.

열린 교화행정-마음공부 병행

직원 180명중 회원 70명 재소자에 영치금 후원

최근 탈옥수 신항원의 검거로 교도행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재소자들을 교화경생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고 있는 불자회가 있다. 경주교도소 교정불자회(회장 서경식)는 이 화두를 풀기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임. 불자회는 경주교도소에서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불자들이 지난95년 3월 개인적 수행과 재소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조직됐다.

동교도소에 근무하는 1백80여 명의 직원중 70여명이 가입된 불자회는 매일 한차례 불국사불교교육원에서 석두암주지 성탄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와는 별도로 재소자들은 매주 한차례 수요법회를 갖는데 이때는 폐쇄되고 격리된 공간이 삼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법회는 불국사와 울산 한마음원원 그리고 경주시내 사찰에서 번갈아가며 봉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재소자들을 감화시킨다는 원력을 세워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회원

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영치금없는 재소자 30명에게 1만원씩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했으며, 2년전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 제공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3부제 교대근무가 많아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 어렵고 수행공간을 마련할수 없는 등 애로사항도 적지않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말에는 회원 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반야의 밤'을 개최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틈틈이 성지순례도 다녀오는 등 수행활동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법회에 참석해 감화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서경식회장은 "교도소 실정에 맞는 수행행태를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과문

본인은 미얀마 삼보불상조각원 대표로서 99년 6월 25일경 "「옥불」 미얀마의 天然白玉佛로 가피력과 氣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제하의 팸플릿을 제작하면서 국내 대한석불 조각원 작가가 이재순씨가 제작한 관세음보살 백옥불상의 사진을 작가와의 승인없이 팸플릿 전면에 게재하여 마치 미얀마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홍보한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후 귀 작품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일

미얀마삼보불상조각원 대표 최상호
회장 최정수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축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명 졸업·40기생 모집중>

-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학의식(법원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대 법학의식 교육)

| | | | | |
|-------------|------------|--------------------------|-----------------------------|--------|
| 1 학년 | 1 학기 (16주) |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 유식사상 |
| | 2 학기 (12주) |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 중국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 ◇ 비교종교 |
| 2 학년 | 1 학기 (18주) |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 반야사상 |
| | 2 학기 (12주) |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사상 | ◇ 대승불교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 천태사상 |

- 교수진** 원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박사, 법원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 초빙강사** 원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중(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 모집 및 전형**

| 모집과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방법 |
|--------------|------------------|-------------------|----------|
| ● 불교학 총강 00명 |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 ● 불교학 통신 00명 |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 주민등록등본1부(사진 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사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정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33)461-1212
-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우 법사호 수여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리 (0595)882-4585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